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의 영향

이외선¹, 구미옥^{2*}, 김미정¹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Lee Oi Sun¹, Gu Mee Ock^{2*}, Kim Mi Jung¹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8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r=.582, p<.001$)를 보였으며,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36.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75 Korean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5 to September 12, 2013.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owed a clos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r=.582,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explained 36.7% of total variance of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curriculum and program for improv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길러주고[1],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향후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임상수행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간호대학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에 치중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문직 업무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의료팀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성지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

*Corresponding Author : Mee - Ock Gu(Gyeongsang National Univ.)

Tel:+82-55-772-8226 email: mogu@gnu.ac.kr

Received August 11, 2014

Revised (1st September 22, 2014, 2nd September 24,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습관이다[4].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사고로 간호실무에서 근거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며 [5],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과 비판적 사고기술(critical thinking skill)로 개념화된다[4]. 이들 사고성향과 기술은 선행연구에서 [6]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비판적 사고가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7,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9]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10],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에 필수적이다 [11,1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12,13,14],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12,15]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나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임상수행능력은 지식,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행동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토대로 구축되므로 [1],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정의적 측면인 감성지능을 함께 연구하여 이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과 감성지능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졌을 뿐 이들 관계를 함께 연구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이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M시의 3년제 간호대학 3학년과 J시에 있는 4년제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하면서 2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G power program으로 효과크기를 .2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설정하였을 때 160명으로 계산되었다 [16]. 이에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00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25명을 제외하고 최종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제,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윤진 [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부영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

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40, 본 연구에서는 .890이었다.

2.3.3 감성지능

Wong과 Law[10]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8]이 변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고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은 하위요인별 4문항씩, 감성조절은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0, 본 연구에서는 .860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Lee 등[19]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기초로 Choi[20]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60, 수정보완시 .900, 본 연구에서는 .950이었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Scale	Cronbach α for previous study	Cronbach α for scale
Critical thinking	.840	.890
Emotional intelligence	.870	.860
Clinical competence	.900	.950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대상 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00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175부(87.5%)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학생 167명(95.4%), 남학생 8명(4.6%)이었다. 연령은 만22세 이하가 129명(73.3%), 만23세 이상이 46명(26.1%)이었다. 학제는 3년제 99명(56.3%), 4년제 76명(43.2%)이었다.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8명(50.0%)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54명(30.7%), ‘만족하지 못한다’ 33명(18.8%)으로 나타났다.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9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63명(35.8%), ‘만족하지 못한다’ 43명(24.4%)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	%
Gender	Male	8	4.6
	Female	167	95.4
Age	22 \geq	129	73.3
	23 \leq	46	26.1
Educational level	3 years	99	56.3
	4 years	76	43.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88	50.0
	Neutral	54	30.7
	Dissatisfied	33	18.8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69	39.2
	Neutral	63	35.8
	Dissatisfied	43	24.4

3.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중 객관성은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 공정성 3.65, 지적열정 3.63점, 자신감 3.62점, 건전한 회의성 3.56점, 체계성 3.37점, 신중성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가 각각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성조절 3.60점, 감성활용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간호교육/협력관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기술 및 전문직 발전 3.60점, 간호과정 3.57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5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능력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4년제가 3년제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78, p=.00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학제와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학제에 따른 차이는 4년제가 3년제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96, p=.005$).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른 감성지

능의 차이는 만족 군이 만족하지 못한 군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 4.89, p=.009$).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s	Categories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eagerness	3.63±.66
	Prudence	3.15±.50
	Self-confidence	3.62±.66
	Systematicity	3.37±.74
	Intellectual fairness	3.65±.52
	Healthy skepticism	3.56±.52
	Objectivity	3.74±.62
	Total	3.53±0.41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72±0.60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72±0.56
	Use of emotionals	3.50±0.63
	Regulator of emotionals	3.60±0.51
Total	3.55±0.47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kill	3.60±0.51
	Nursing Teaching/Collaboration	3.68±0.58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56±0.55
	Nursing process	3.57±0.50
	Professional attitude	3.60±0.52
Total	3.60±0.44	

[Table 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Clinical Competence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	3.55±0.40	0.15	.885	3.73±0.39	1.08	.282	4.00±0.66	2.79	.006
	Female	3.52±0.41			3.54±0.47			3.57±0.41		
Age	22≥	3.54±0.42	0.56	.574	3.54±0.50	0.86	.391	3.61±0.46	0.86	.391
	23≤	3.50±0.39			3.58±0.37			3.55±0.34		
Educational level	3 years ^a	3.45±0.39	-2.78	.005 (a<b)	3.46±0.41	-2.96	.005 (a<b)	3.57±0.45	-1.36	.175
	4 years ^b	3.63±0.42			3.67±0.52			3.65±0.4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a	3.55±0.41	0.41	.662	3.66±0.46	4.89	.009 (a>c)	3.66±0.43	2.06	.131
	Neutral ^b	3.49±0.44			3.48±0.42			3.56±0.43		
	Dissatisfied ^c	3.55±0.38			3.40±0.40			3.49±0.5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52±0.42	0.03	.972	3.64±0.49	2.04	.133	3.66±0.45	1.01	.364
	Neutral	3.54±0.38			3.54±0.45			3.56±0.39		
	Dissatisfied	3.53±0.47			3.46±0.50			3.56±0.48		

3.4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및 임상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감성지능($r=.582, p<.001$), 임상수행능력($r=.56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은 임상수행능력($r=.50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e

(N=175)			
Variables	CTD	EI	CC
CTD	1		
EI	.582($p<.001$)	1	
CC	.567($p<.001$)	.504($p<.001$)	1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I =Emotional Intelligence, CC =Clinical Competence

3.5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을 예측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은 2.503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662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가 1.512로 기준이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9.92, p<.001$),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beta=.413, p<.001$)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수행능력을 32.1% 설명하였다. 이후 감성지능($\beta=.264, p<.001$)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수행능력을 4.6% 추가 설명하였다. 이들 두 변수에 의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36.7%였다 [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N=175)

Variables	β	R ²	CumR ²	t	p
Constant				4.924	<.001
CTD	.413	.321	.321	5.542	<.001
EI	.264	.046	.367	3.538	.001
$F=49.92, p<.001$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I =Emotional Intelligenc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년제 간호대학 3학년과 4년제 간호대학 4학년 학생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3.53점(범위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21]의 연구에서 3.60점과 유사한 결과이며, 1년 이상 임상실습을 시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과 Kwag의 연구[22] 3.17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서는 객관성과 지적 공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계성과 신중성이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1]. 본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이다[17]. 간호대학생의 신중성이 낮은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현재 간호교육에서 주입식 강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대학생 역시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암기위주의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시 임상현장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임상현장지도자와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는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영역 중 신중성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3]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중 신중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임상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성향이고,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기술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강한 정적 관계($r=.587, p<.001$)에 있으므로[24] 임상실습 교육시 근거기반간호교육을 접목하는 것이 신중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는 4년제 학생이 3년제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6,7,25]. 이는 3년제와 4년제 학제의 경우 입학성적의 편차와 두 학제간의 교육과정, 교육 목표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6] 연령에 따른 성숙의 결과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평균 3.55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3년제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Gu[12]의 연구에서는 3.39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Chung연구[26]의 3.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가 높고, 감성조절, 감성활용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12,13,15].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은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중 상위 단계이고 임상실습시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학제와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4년제 4학년이 3년제 3학년 학생보다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 간호학과 만족 군이 간호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군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12]와 일치한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대신 긍정적 감정상태를 유지하고 간호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간호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을 2개 학기 경험한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 학생에서 평균 3.60점(범위 1-5점)이었다. 이는 3년제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Jung[27]의 연구에서 3.77점, 4년제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8]의 연구에서 3.49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에서는 교육 및 협력이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Sung[29]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에서 간호교육 및 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Jang과 Kwag[2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가장 높고 간호교육/협력관계, 간호과정이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4년제 간호대학생과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Sung[29]과 Jung[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Lee 등[7]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감성지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수행능력을 32.1%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7,22].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객관화 시키며,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기술을 높이고[6], 또한 문제해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 [30]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에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교수법 및 간호대학생의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31]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는 한 가지 방안으로 근거기반실무 교육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감성지능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한 이후 4.6%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추가 설명력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r=.582, p<.001$)를 보여 감성지능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의해 이미 설명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감성지능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므로써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함과 더불어 독자적으로도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Lee와 Gu[12]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 일치하며, 임상수행능력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하여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므로서 공감적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증진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간호교육현장에서 감성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Lee[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시 감성지능이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유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32]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지지추구적 감정조절($r=.23, p<.001$), 능동적 감정조절($r=.33,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Goleman[33]은 감성이 인지능력을 발휘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지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성지능이 인지적 측면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충분히 발휘하는데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Lee 등[32]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내적인 감정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감성지능의 하위 영역인 감정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연구대상자를 G도 소재 2개 간호대학의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에서 편의표집하여 학제 면에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소속지역과 숫자를 확대하고 확률표집을 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과 더불어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계속 연구되어온 인지적 측면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함께 정의적 측면인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데 있다.

이에 간호교육현장에서는 미래에 임상현장에서 우수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과 더불어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2개 요인의 설명력은 3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 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I. Park, J. Ah. Kim, J. K. Ko, M. S. Chung, K. S. Bang, M. A. Choe, M. S. Yoo, H. Y. Jang,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 663-67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63>
- [2] D. Chan,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2), pp.69-75, 2002.
- [3] C. Barrett, &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2), pp.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4] N. Facione, P. Facione, & M. Sanchez. "Critical-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 pp.345-350. 1994.
- [5]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6] D. Y. Chung.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 about Student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2012.
- [7] E. J. Lee, Y. J. Yi, Y. S. Kim, H. S. Jo, H. S. Kim, Y. M. Kim, K. H. Park, J. S. Kim. "Original Articles :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ed Nursing Co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pp.218-225,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218>
- [8] Y. H. Kwon, K. O. Gye.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Evidence-Based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pp.4572-4581,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72>
- [9] Y. W. Shin, H. J. Lee, Y. J. Lim,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1), pp.37-47.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218>
- [10]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11] E. O. Park, "Original Articles : Effects of Family Nursing Practicum Using Role Play o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Family Nursing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656-662, 2013.
- [12]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13] O. S. Lee,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 resear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4.
- [14] M. Beauvais, N. Brady, E. R. O'Shea, & M. T. Q. Griff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31(1), pp.396-40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0.07.013>
- [15] E. J. Shi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2.
- [16]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7] J. Yu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18] P.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7.
- [19]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Journal Nursing Science*, 13, pp.17-29, 1990.
- [20]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21]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Original Article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pp.339-34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37>
- [22]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pp.4380-438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23]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 19(1), pp.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24] J. S. Kim, M. O. Gu, S. Y. Cho.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Readiness for Tertiary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2945-295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945>
- [25] D. Y. J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cademic Year". NURSING SCIENCE, 23(1), pp.13-20, 2011.
- [26]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3), pp.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27] J. S. Jung. "Original Articles :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pp. 53-61,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53>
- [28]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pp.337-343, 2011.
- [29] M. H. Sung.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1), pp.90-99, 2010.
- [30] Y. M. Kim. "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2), pp.190-197,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2.190>
- [31] J. S. Kim.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Practice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4.
- [32]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Y. H. Jung. "Original Articles :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 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33]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Bantam Books, New York, 1995.

이 외 선(Oi - 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

구 미 옥(Mee Ock Gu)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84년 11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회장

<관심분야>
근거기반, 당뇨

김 미 정(Mi - J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정신장애인 재활, 자살